

이희승 시의원·수원시다문화정책과·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책간담회 개최



지난 31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에서 이희승 수원시의원과 수원시다문화정책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수원시의회 이희승 시의원, 수원시다문화정책과 박도용 과장 및 실무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원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의 센터, 유관기관 이용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수원시 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현황 및 개선사항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은 총인구 51,829,136명 대비 4.2%인 2,156,417명이며, 2006년 536,627명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주민의 60%인 1,293,739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33.3%인 717,9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수가 안산시 93,792명(13.1%) 다음으로 높은 66,668명(5.5%)으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OECD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5.5%로 다문화사회 진입을 넘어 정착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관기관으로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 간 약 10만 명이 센터를 이용 중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학령기 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내방하고 있으며 규모로 볼 때 큰 이용 시설로써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지자체 민간 유상임대료 운영되며 시설 크기가 이용자의 수를 모두 수용하기에 적고, 교통과 주차 등이 제한되어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승 시의원은 "다문화가족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센터현황 및 이

전 등의 사항에 대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용 과장은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황을 파악해 준비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전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수원시다문화정책과의 많은 지원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고 다문화가족에 관심갖고 힘써주시는 이희승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센터도 수원시 다문화가족을 위해 수월특례시형 다문화사회 건설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naver.com

수원시, 다문화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협력 이어간다

수원시는 8월 30일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8월 찾아가는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도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 등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사업으로 ▲제14회 다문화가족 축제(9월 예정)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SNS 시정 홍보단 '제5기 다(多)누리꾼' 정례회의(9월 예정) ▲제7회 수원시 내·외국인 말하기 대회(11월 예정) 등을 공유했다.



또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모임·동아리 ▲평생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다문화 관련 기관과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수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관별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서 운영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최봉호 기자

hazy109upda@naver.com